

## CONDUCTOR

# 미하엘 잔데를링

MICHAEL SANDERLING

Principal Conductor of the Dresden Philharmonic



© Marco Borggreve

미하엘 잔데를링은 2011년부터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수석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면서 잔데를링과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그들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증명하는 주요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동시에 잔데를링은 세계 최고 음악 단체들로부터 초청받고 있으며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요미우리 일본 심포니,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뮌헨 필하모닉, 밤베르크 심포니, 빈 심포니, 토론토 심포니, 도쿄 NHK 심포니,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독일 방송교향악단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들과 함께 작업하였다.

베를린 출신인 미하엘 잔데를링은 오케스트라 단원에서 세계적인 지휘자로 출세한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하나이다. 1987년, 20세였던 잔데를링은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첼로 솔로리스트로 활동하였으며 1994년부터 2006년까지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에서 활동하였다. 솔로리스트로 그는 보스턴 심포니, LA 필하모닉, 파리 오케스트라 등 여러 오케스트라로부터 초청받았으며, 체임버 음악에도 대단한 열정을 지녀 8년 동안 트리오 엑스 애쿠오 멤버로 활동하였다.

2000년 베를린 체임버 오케스트라 리허설에서 그는 지휘자 단에 처음 올랐으며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이자 전설적인 지휘자인 쿠르트 잔데를링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던 미하엘은 점점 지휘자 직을 맡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하였고, 2006년 포츠담 캄머아카데미의 수석 지휘자 및 예술감독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포츠담에서 필립 글래스의 오페라 <어서가의 몰락>과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전쟁과 평화>의 새로운 프로덕션 오페라 지휘로도 성공적인 무대를 거뒀다. 첼리스트이자 지휘자로서 잔데를링은 드보르자크, 슈만, 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예프, 차이콥스키 등 여러 작품으로 음반 발매를 하였다. 2010년 이후 첼리스트로서의 활동은 접고, 지휘 활동과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

미하엘 잔데를링은 젊은 음악가들과 작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현재 프랑크푸르트 공연예술 대학 교수로 활동하며 독일 국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예루살렘 바이마르 청소년 오케스트라, 용게 도이체 필하모닉, 쉘레스비히 홀슈타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작업하였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는 도이치 현악 필하모닉의 수석 지휘자로 활동하였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에 의하면 미하엘 잔데를링은 리허설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되 공연 중에는 단원들의 열정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낸다고 한다. 그의 음악적 지평은 바흐와 헨델부터 여러 초연 무대까지 폭 넓은 작품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사운드와 스타일의 유연성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여기고 있다.